

#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 간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Age Children's Overt/Covert Narcissism with Self-Control and Mothers' Parenting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민 하 영\*\*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Min, Ha-Young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age children's overt/covert narcissism with self-control and mothers' parenting. The subjects were 517 children in the 5th and 6th grade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s and SPSS Win 19.0 wa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chool-age children's overt narcissism differed in boys and girls. However, this was not the case for covert narcissism. (2) The overt narcissism of school-age boys and girl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control. However covert narcissism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control. (3) The active-responsive and active-restrictive parenting of mothers influenced on the overt narcissism of school-age boys, while the active-responsive parenting of mothers influenced the overt narcissism of school-age girls. Also, the active-responsive and active-restrictive parenting of mothers influenced the covert narcissism of school-age boys, while the active-responsive and passive-permissive parenting of mothers influenced the overt narcissism of school-age girls. (4) The active-restrictive parenting of mothers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in the overt/covert narcissism of school-age boys and the covert narcissism of school-age girls.

---

▲주요어(Key Words) : 외/내현적 자기애(overt/covert narcissism), 자기통제(self-control), 어머니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 I. 문제제기

학교 폭력 등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 행동들이 점점  
하자 이를 제어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밥상머  
리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최근 강

조되고 있다. 그러나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이며 자기  
애적인 행동은 물질만능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어서 '밥상머리 교육'의 실효성을 조기에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애적인 행동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회적으로 관  
리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적 행동이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 파괴적 행동 뿐 아니라 우울, 소외 등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관  
심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자기애적 인성 특성은 생애

---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  
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주저자·교신저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초기부터 지도하고 관리되어야 할 분야라 볼 수 있다.

나르시즘으로 불리기도 하는 자기애란 '거대성(거대자기 환상 grandiose)'과 '자기 중요(self-importance)'의 형태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Atals & Them, 2008). 자기애가 강한 자기애자 또는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과시적 행동을 하거나 관심과 인정을 요구하며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과 권력, 아름다움, 우수성, 이상적 사랑 등에 몰두하기 쉽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사회적 성공, 우수성 등 자기애적 성향이 갖는 외적 특성 때문에 간혹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첫 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며, 상당히 적응적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첫 인상에 대한 외부 평가와 달리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착취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 부족으로 피상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쉬우며, 자신의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분노나 공격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 특성 때문에 자기애적 성향에 관한 초기 연구는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최근,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정상인에게도 필요한 성격 특징 중 하나로 제안(Horton, Bleau, & Dwecki, 2006)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기애적 성향으로 연구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자기애는 거대성(거대자기 환상), 과시성, 자기 몰두, 자기 중요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 때문에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Kernberg, 1975; Kohut, 1977; Akhtar, 1989; Stucke & Sporer, 2002)되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의 사람은 웅대한 자기표상과 오만한 태도를 기초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를 잘 감지하지 못하며, 공격적 특성을 보이기도 쉽다. 그러나 자기 인정 욕구에 기반한 높은 리더십 등으로 사회적 호감이나 매력력을 인정받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내현적 자기애의 사람은 방어적이며 취약할 뿐 아니라 불안한 특성을 보인다(Wink, 1991). 이들은 자기 의심이 많으며 타인의 비난에 과도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다.

자기애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내포한 외/내현적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적응과 유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rf & Rhodewalt, 2001; Sedikides et al., 2002; Barry et al., 2007). 그러나 사회적 부적응과 유관하다고 알려진 자기애가 어떤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상황이다. 자기애 발달 원인에 관한 초기 연구는 유전적 측면, 생애적 측면, 성격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기애의 발달

원인을 부모의 양육행동 측면에서 탐색하는 연구(Kohut, 1977; Millon, 1981)가 이루어지면서 유전적이나 생애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자기애의 형성 요인을 탐색하려는 노력(Watson et al., 1992; Ramsey et al., 1996; Watson et al., 2002; Cramer, 2011; Otway & Vignoles, 2011)이 증가하였다.

자기애와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Kernberg (1975)와 Kohut(1977)는 거부적이고 제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기애적 성향을 발달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부모의 거부적이고 제한적인 양육행동이 세상에 대한 불신감을 자녀에게 발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게 되는 자기애적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Million(1981)은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자기애적 성향을 발달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허용적 양육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애정과 비현실적 강화가 거대자기 환상에 기반한 자기애적 성향을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자기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의 유형은 연구자 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역기능적 부모 양육행동이 자기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연구자 간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자기애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 간 일치성을 나타냈다는 하나 이를 외/내현적 자기애에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애가 외/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될 만큼 외/내현적 자기애가 갖는 이질적 독특성이 최근 확인되고 있고, 외현적 자기애에서 높은 자신감과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등 발달의 건강성 또는 순기능성이 일부 확인(Wink, 1991, 1992; Gang & Chung, 2002; Suh & Yang, 2010)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발달 특성과 정적인 상관관계(Fossati et al., 2010)를 나타내지만 외현적 자기애를 구성하는 요소 중 권위나 자기충만, 리더십 등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적응적 발달 특성과 정적 관계(Watson et al., 1995; Campbell et al., 2000; Brown, Budzek, & Tamborski, 2009)를 보인다. 또한 열등감이나 소진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Gang & Chung, 2002), 우울, 불안과 부적 관계(Sedikides et al., 2004)를 보이는 등 발달적 건강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내현적 자기애는 과민하고 취약한 자기 개념적 특성으로 인해, 내향적이고 우울과 불안을 느끼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심하며, 낮은 자신감과 삶에 대한 낮은 만족감(Gang & Chung, 2002; Wink, 1991) 등 건강하지 못한 발달 특성과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기애를 외/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 양육행동과 일방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은 외/내현적 자기애가 갖는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외/내현적 자기애와 부모양육 행동간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에 의하면 외현적 자기애는 애정적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Kim, 2008; Hong & Sung, 2012)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의 발달 원인을 역기능적 부모 양육행동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기애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애적 특성을 외/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한 후 외/내현적 자기애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외/내현적 자기애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첫째, 외/내현적 자기애와 양육행동간 관계 정보가 현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다는 잇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내현적 자기애와 부모 양육행동간 관계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과거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회고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된 것이다. 회고적 자료의 특성 상 제공된 정보는 재해석되거나 누락되는 등 자료의 오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양육행동과 외/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자료 확보 연구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애적 특성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성인을 중심으로 연구(Emmons, 1984, 1987; Campbell et al., 2000; Sedikides et al., 2004; Brown et al., 2009)되어 왔다. 따라서 청소년기나 학령기를 포함한 아동의 자기애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 연구는 학령기 아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애적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인기 자기애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외현적 자기애가 내현적 자기애와 달리 자기통제와 같은 건강한 또는 순기능적인 발달특성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Emmons, 1984, 1987; Sedikides et al., 2004)을 확인하고자 한다.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자기통제(Mischel, 1974)는 성공적 사회 적응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순기능적 발달 특성(Gottfredson & Hirschi, 1990; Muraven & Baumeister, 2000)이다.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Watson et al., 1995; Brown et al., 2009; Campbell et al., 2000)처럼 자기통제가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 관계를 보인다면 첫째, 외현적 자기애 안에 내재하는 건강성이나 순기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앞서 기

술했듯이 외현적 자기애를 구성하는 요소적 특성 때문에 외현적 자기애는 성취, 자존감, 삶의 만족 등에서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통제와 같은 적응적 발달 특성과도 정적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애자들은 자기통제력이 낮다고 보고(Trumpeter, Watson, & O'Leary, 2006)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애를 외/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여 자기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외/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애라는 공통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측면의 자기애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가 내현적 자기애와 달리 자기통제와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면 외현적 자기애가 지니는 건강성 또는 순기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Emmons, 1984, 1987; Sedikides et al., 2004)의 시각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가 갖는 관계성을 기초로, 외현적 자기애와 온정, 지지와 같은 기능적 양육행동 간 관계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외현적 자기애가 자기통제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면, 외현적 자기애 안에 내재하는 건강성이나 순기능성은 간과할 수 없는 자기애의 또 다른 발달 특성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간 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자기애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Kwan & Han, 2000) 및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Pauletti, Menon, & Perry, 2012),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Cramer, 2011) 등 연구결과가 혼재되어있다. 이와 같이 자기애에 대한 성차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기애에 대한 성차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의 남녀 차이를 우선 살펴보고, 외/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남녀 아동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인구학적 자료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 차이는 유의한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간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녀 아동 51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또래와의 사회적 비교 과정에서 비현실적이고 과장되며 우월한 자기 인식(Marsh, Craven, & Debus, 1998) 등 자기에적 성향이 현실적 문제로 재고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아동 중 5학년 아동은 287명(55.5%), 6학년 아동은 230명(44.5%), 남자는 263명(50.7%), 여자는 256명(49.3%)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30대가 102명(19.7%), 40대가 392명(75.5%), 50대 이상이 25명(4.8%),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242명(46.67%), 40대가 272명(52.4%), 50대 이상이 5명(1.0%)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91명(17.6%), 전문대졸 이상이 426명(82.4%),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117명(22.6%), 전문대졸 이상이 400명(77.4%)로 나타났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118명(36.4%), 300~400만원 미만 가구는 148명(28.6%), 400만원 이상 가구는 181명(35.0%)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에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서 Gwak, Hong and Han(2010)이 개발한 아동용 외/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현적 자기에에는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의 말을 잘 믿고 따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싶다' 등 우월의식, 리

더습, 칭찬과 자기인정 욕구 요인의 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했으며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2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에에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면 똑같이 해준다', '창피를 당하면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편이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등 착취와 공격성, 과민성과 취약성, 자기중심성 요인의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했으며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Coolahan, McWayne, Fantuzzo and Grim(2002)이 Baumrind(1966)의 부모 양육양식을 토대로 작성한 부모 양육양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9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는 적극적-반응적, 소극적-허용적,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의 3개 행동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적극적-반응적 양육행동은 Baumrind(1966)의 권위있는 양육행동(authoritative)과 유사한 차원(Collahan et al., 2002)으로 아동의 요구에 대해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반응적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합리적 설명에 기반해 아동의 행동을 제한한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잘 해보려고 애쓸 때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신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마음 상했을 때, 그 맘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신다' 등의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은 Baumrind(1966)의 허용적 양육행동과 유사한 차원은 아니다. 온정성이 부족하며 지시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age Children

(n=517)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5th	287(55.5)	Gender	boy	262(50.7)
	6th	230(44.5)		girl	255(49.3)
Mother age	30s	242(46.8)	Father age	30s	102(19.7)
	40s	270(52.2)		40s	390(75.4)
	50s	5( 1.0)		50s	25( 4.8)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117(22.6)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91(17.6)
	2 year college	51( 9.6)		2 year college	62(12.0)
	university	349(67.5)		university	364(70.4)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아동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리 어머니는 시킨 것을 안했을 때 그냥 두거나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 '우리 어머니는 처벌하겠다고 말로는 겁을 많이 주지만 실제 그만큼 처벌하지는 않으신다' 등의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Coolahan et al.(2002)의 척도에서는 11문항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70대로 낮추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적극적 제한적 양육행동은 Baumrind(1966)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유사한 차원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비난적 태도를 보이며 체벌적 훈육을 사용한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애를 먹일 때 표나게 화를 내신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말을 안들을 때 때리신다' 등의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적극적-반응적, 소극적-허용적,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각각 .95, .80, .86으로 나타났다. 응답가능범위는 각각 16-54점, 10-40점,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반응적, 소극적-허용적,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endall and Wilcox(1979)가 개발한 자기통제 척도(SCRS: Self-Control Rating Scale)를 사용하였다. '나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매일 일정하게 한다',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가져야 한다',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등의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응답가능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 19.0프로그램의 독립표본에 의한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3개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Table 2>에서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M(SD) = 2.05(.47))보다 외현적 자기애(M(SD) = 2.48(.50))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양육행동의 경우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M(SD) = 3.08(.59))을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M(SD) = 2.08(.51))은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의 경우 문항 평균이 3점 이상(M(SD) = 3.46(.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통제를 낮지 않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 차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라 외/내현적 자기애를 독립표본에 의한 t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3>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듯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게 나타났다( $t = -3.08, p < .01$ ).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간 관계

<연구문제 2>인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통제 간 관계는 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두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보다 변인 간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Table 2. The mean(SD) of Covert/Overt Narcissism, and Parenting Style

Variables		Min-Max	Mean(SD)/Item
Narcissism	Overt narcissism	1-4	2.48(.50)
	Covert narcissism	1-4	2.05(.47)
Parenting style	Active-responsive	1-4	3.08(.59)
	Passive-permissive	1-4	2.08(.51)
	Active-restrictive	1-3.92	2.12(.56)
Self-control		1.97-4.91	3.46(.50)

Table 3. The Mean(SD) of Overt/Covert Narcissism by Child Gender

Gender	Overt narcissism Mean(SD)	Covert narcissism Mean(SD)
Boys(262)	2.41(.51)	2.04(.47)
Girls(255)	2.54(.47)	2.06(.47)
t값	-3.08**	-.49

\*\* $p < .01$ 

Table 4. Correlation of Overt/Covert Narcissism with Self-control for Boys and Girls

Variables	Self-control	
	Boys	Girls
Overt narcissism	.17**	.37***
Covert narcissism	-.27**	-.41***

\*\* $p < .01$ , \*\*\* $p < .001$ 

Table 5. Correl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boys the diagonal below, girls the diagonal above)

Variables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Active-responsive	Passive-permissive	Active-restrictive
Overt narcissism	1	.23***	.26***	.03	-.01
Covert narcissism	.41***	1	-.22***	.18**	.37***
Active-responsive	.18**	-.17**	1	-.03	-.43***
Passive-permissive	.12*	.14*	.10	1	.08
Active-restrictive	.22***	.24***	-.27***	.17**	1

\* $p < .05$ , \*\* $p < .01$ , \*\*\* $p < .001$ 

이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남아( $r = .17$ ,  $p < .01$ )와 여아( $r = .37$ ,  $p < .001$ ) 모두 자기통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남아( $r = -.27$ ,  $p < .01$ )와 여아( $r = -.41$ ,  $p < .001$ ) 모두 자기통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3.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외/내현적 자기애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적극적-수용적, 소극적-허용적,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남녀 아동 구분해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은 인과적 관계의 방향성뿐 아니라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회귀분석 전에 <Table 5>에서 종속과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중회귀분석 과정에서 공차한계값과 분산팽창계수,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를 알아보았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남아의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는 절대값 .27 이하이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89에서 .91,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11에서 1.13사이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1.86으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2).

한편 여아의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는 절대값 .43이하이며,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81에서 .99, 분산팽창계수 VIF 값은 1.01에서 1.23사이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urbin-Watson(D-W) 계수가 2.03으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2). 이는 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Overt Narcissism with Parenting

Gender	Variables	Overt narcissism		R <sup>2</sup>	adjR <sup>2</sup>	F(df)
		B	$\beta$			
Boys (262)	Constant	1.08(.25)		.11	.10	10.54*** (3, 258)
	Active-responsive	.22(.05)	.24***			
	Passive-permissive	.05(.06)	.05			
	Active-restrictive	.26(.06)	.28***			
Girls (255)	Constant	1.50(.27)		.08	.07	7.45*** (3, 251)
	Active-responsive	.25(.05)	.31***			
	Passive-permissive	.03(.06)	.03			
	Active-restrictive	.10(.06)	.12			

\*\*\* $p < .001$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f Covert Narcissism with Parenting

Gender	Variables	Covert narcissism		R <sup>2</sup>	adjR <sup>2</sup>	F(df)
		B	$\beta$			
Boys (262)	Constant	1.80(.22)		.08	.07	7.64*** (3, 258)
	Active-responsive	-.11(.05)	-.13*			
	Passive-permissive	.11(.06)	.12			
	Active-restrictive	.16(.05)	.18**			
Girls (255)	Constant	1.36(.25)		.17	.16	16.55*** (3, 251)
	Active-responsive	-.06(.05)	-.07			
	Passive-permissive	.14(.06)	.15*			
	Active-restrictive	.28(.05)	.33***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6>은 남아와 여아의 외현적 자기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회귀분석 결과다. 분석결과 남아의 외현적 자기에  $\beta$ 값의 방향성(음수 또는 양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 $\beta = .24$ ,  $p < .001$ ),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beta = .28$ ,  $p < .001$ )과 각각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은 <Table 5>에서 나타나듯 변인 간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양육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외현적 자기에와는 정적 관계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남아의 외현적 자기에 미치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10%( $adjR^2 = .10$ )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값 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beta = .28$ )이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 $\beta = .24$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여아의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

적-수용적 양육행동( $\beta = .31$ ,  $p < .001$ )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여아의 외현적 자기에와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 간 관계는  $\beta$ 값의 방향성(음수 또는 양수)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의 외현적 자기에 미치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7%( $adjR^2 = .07$ )로 나타났다.

<Table 7>은 남아와 여아의 내현적 자기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다. 분석결과 남아의 내현적 자기에  $\beta$ 값의 방향성(음수 또는 양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 $\beta = -.13$ ,  $p < .05$ )과는 부적 관계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beta = .18$ ,  $p < .01$ )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남아의 내현적 자기에 미치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7%( $adjR^2 = .07$ )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값의 절대값 크기에서 알 수 있

듯이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beta = .18$ )이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 $\beta = -.13$ )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여아의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 $\beta = .15, p < .05$ )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beta = .33, p < .001$ )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여아의 내현적 자기에 미치는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16\%$ ( $\text{adj}R^2 = .16$ )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값의 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beta = .33$ )이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 $\beta = .1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519명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외/내현적 자기에와 자기통제 및 어머니 양육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는 경험적 연구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와 달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Watson et al., 1995; Campbell et al., 2000; Brown et al., 2009)를 고려해 볼 때 여아의 외현적 자기에가 남아의 외현적 자기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학령기 여아의 자아존중감이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Lee, Doh, & Chee, 2011)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에와 자아존중감 모두 자기 가치와 관련된 개념임을 고려해 볼 때, 남아에 비해 높은 여아의 외현적 자기에에 아마도 남아에 비해 높은 여아의 자아존중감과 연결되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외현적 자기에의 성차를 유발하는 변인(자아존중감 포함) 탐색 등이 다수의 추후 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에 중 자기 충만, 리더쉽, 우월성 등 외현적 자기에를 구성하는 요인의 경우, 건강하고 순기능적이며 적응적인 자기에로 평가되고 있다(Washburn et al., 2004; Watson & O'Leary, 2006; Barry et al., 2007). 따라서 자기에 중 외현적 자기에의 발현은 자기에가 갖는 역기능적이며 부적응적인 문제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고려해 볼 때, 자기에 관련 중재 활동 시 남아에게는 보다 주의 깊은 관심과 지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외현적 자기에를 보인 남아는 적응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령기 남녀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에에는 자기통제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관계의 방향성에는 외/내현적 자기에 간 차이를 보였다. 학령기 남녀 아동 모두 외현적 자기에에는 자기통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내현적 자기에에는 자기통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외현적 자기에자가 내현적 자기에자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고(Choi, Lee & Lee, 2012),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자존감이 높고 자기 평가가 긍정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Campbell, Rudish, & Sedikides, 2002; Rose, 2002; Atlas & Them, 2008)를 지지하는 것이다.

외현적 자기에가 내현적 자기에와 달리 삶의 적응적 준거변인으로 알려진 자기통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외현적 자기에가 건강하고 순기능적이며 적응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Emmons, 1984; Washburn et al., 2004; Trumppeter, Watson & O'Leary, 2006; Barry et al., 2007)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현적 자기에에는 내현적 자기에와 이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구성하는 자기에적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는 외현적 자기에가 내현적 자기에와는 다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것임을 함의하는 것이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에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설명되나, 남녀 아동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남아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와 여아 모두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외현적 자기에에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기에에는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Kernberg, 1975; Kohut, 1977; Million, 1981)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기능적인 양육행동으로 분류되는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애정적이며 수용적일 때 보다 높은 외현적 자기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현적 자기에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외현적 자기에가 건강한 자기에적 성향을 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문제 2>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현적 자기에가 남아와 여아 모두 자기통제와 정적 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에의 경우 Emmons(1984, 1987)가 지적한 것처럼 리더쉽이나 우월성 등 건강성을 가진 자기에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외현적 자기에가 지니는 순기능성이나 적응성을 작동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외현적 자기에가 갖는 건



강성에도 불구하고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아의 외현적 자기애는 어머니의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모두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은 부적 상관의 상호 이질적 양육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의 외현적 자기애와는 공통적으로 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남아의 외현적 자기애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분명 건강한 자기애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적응적 행동 뿐 아니라 부적응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인 것은 사실이다(Shim & Lee, 2012). 따라서 남아의 외현적 자기애가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한 영향받고 있음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에서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의 건강성이나 긍정성의 일면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통제와 같은 적응적 발달 특성만을 연결시켜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발달 특성 간의 관계 규명 연구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서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아의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방향성에서 정적 형태( $\beta = .12, n \cdot s$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가 긍정적 순기능과 부정적 역기능을 내포하는 다원적이고 복잡적 개념임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는 남아의 경우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부적 관계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여아의 경우 남아와 달리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과 모두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이 낮을 때,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가 역기능적 양육행동인 점을 고려할 때,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와 달리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유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역기능적 양육행동에 영향받다고 지적한 연구들(Kernberg, 1975; Kohut, 1977; Million, 1981)과 일치하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와 달리 부적응을 일관되게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주의 사회가 가속화되고 자기가치가 중요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애는 오히려 긴장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식으로 해석(Lasch, 1979)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자기애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치를 최대화하는데 필요하다(Horton et al., 2006)고 제안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애와 달리, 내현적 자기애는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기 어려울 만큼 부정적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의 역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이나 체벌위주의 양육행동이 반사회적 또는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연결(Coie & Dodge, 1998)된 것처럼, 어머니의 낮은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이나 높은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또는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은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회귀분석 결과, 남아의 외현적 자기애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해 10%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에 의해서만 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해 7%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과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에 의해 16%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 소극적-허용적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외현적 자기애를 제외할 경우, 남아의 외현적 자기애나 남녀아의 내현적 자기애 모두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이 낮을 때보다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즉 온정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수준에서 일어날 때보다 비난과 체벌 위주의 양육행동이 높은 수준에서 일어날 때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밥상머리’에서 학령기 아동의 외현적 자기애나 내현적 자기애를 교육,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정과 수용의 적극적-수용적 양육행동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비난과 체벌 위주의 적극적-제한적 양육행동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애의 문제는 지금 보다 더욱 관심있는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애를 외/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남아와 여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애 연구의 관심을 촉발시킨다는 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한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시 아동의 자기애 지도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기애 발달과 더 강하게 연관되었다는 연구(Watson et al., 1992)에 기초해 학령기 아동의 외/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점은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까지 포함시켜 학령기 아동의 자기애에 미치는 부와

모의 상대적 영향력을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검증하였으면 한다.

#### REFERENCES

- 권석만 · 한수정(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양병화(2002). *다변량 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 학지사.
- Akhtar, S.(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escriptive featur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2, 505-529.
- Atlas, G. D., & Them, M. A.(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 62-7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Rev. ed.). Washington, DC: Author.
- Atlas, G. D. & Them, M. A.(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 62-76.
- Barry, C. T., Frick, P. J., Adler, K. K., & Grafeman, S. J. (2007). The predictive utility of narcissism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for a distinction between adaptive and maladaptive narcissis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508-521.
- Baumrind, D.(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4), 887-907.
- Brown, R. P., Budzek, K., & Tamborski, M.(2009). On the meaning and measure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951-964.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58-368.
- Choi, J., Lee, H., & Lee, J.(2012). Effects of evaluative feedback and life events on self-esteem stability of overt, covert narcissis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631-639.
- Coie, J. & Dodge, K.(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development. In W. Dam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 Eisenberg, Vol. Ed.). N.Y.: Wiley.
- Coolahan, K, McWayne, C., Fantuzzo, J., & Grim, S. (2002).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styles for low-income African-American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356-373.
- Cramer, P. (2011). Young adult narcissism: A 20 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styles, preschool precursors of narcissism, and denia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1), 19-28.
- Emmons, R. A.(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mmons, R. A.(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Fossati, A., Borroni, S., Eisenberg, N., & Maffei, C.(2010). Relations of proactive and reactive dimensions of aggression to overt and covert narcissism in non-clinical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36(1), 21-27.
- Freud, S.(1915).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Standard Edition, 14, 117-140, London, Hogarth Press, 1957.
- Fukunish, I., Nakagawa, T., Nakamura, H., Li, K., Hua, Z., & Kratz, T. S.(1996). Relationship between type A behavior, narcissism, and maternal closeness for college studen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sychological Report*, 78, 939-944.
- Gang, S. & Chung, N.(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4), 960-990.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wak, P., Hong, S., & Han, T.(2010).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narcissism scale for children. *The Korea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3), 333-352.
- Hong, Y. & Sung, H.(2012).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on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25(4), 35-48.
- Horton, R. S., Bleau, G. & Drwecki, B.(2006). Parenting narcissus: What are the links between parenting and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4(2), 345-376.
- Hwang, S.(2012). The self structure of narcissistic per-

- sons: Approach based upon the overt vs covert subtyp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9(3), 507-531.
- Kim, H.(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s,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tr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ernberg, O.(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 narcissism*. N.Y.: Jason Aronson.
- Kohut, H.(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N.Y.: Norton.
- Lee, M., Doh, H., & Chee, Y.(2011). The effects of paternal and maternal control on self-esteem in school-age boys and girls: The mediating role of autonom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5), 67-84.
- Marsh, H. W., Craven, R. G., & Debus, R.(1998). Structur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concepts: A multicohort-multioccasion study. *Child Development*, 69(4), 1030-1053.
- Muraven, M. & Baumeister, R. F.(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t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26, 247-259.
- Millon, T.(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N.Y.: Wiley.
- Mischel, W.(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7, pp. 249-29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orf, C. C., & Rhodewalt, F.(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 177-196.
- Otway, L. J. & Vignoles, V. L.(2011). Narcissism and childhood recollections: A quantitative test of psychoanalytic predi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 104-116.
- Pauletti, R. E., Menon, M., Menon, M., Tobin, D. D., & Perry, D. G.(2012). Narcissism and adjustment in pre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3(3), 831-837.
- Ramsey, A., Watson, P. J., Biderman, M. D., & Reeves, A. L.(1996). Self-reported narcissism and perceived parental permissiveness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7, 227-238.
- Rose, P.(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edikides, C., Campbell, W. K., Reeder, G., Elliot, A. J., & Gregg, A. P.(2002). Do others bring out the worst in narcissists? The "others exist for me" illusion. In Y. Kashima, M. Foddy, & M. Platow (Eds.), *Self and identity: Personal, social, and symbolic* (pp. 103-123). Mahwah, NJ: Erlbaum.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him, S. & Lee, J.(2012). Factor structure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relationships with overt/covert narcissism and pathological factor.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6(2), 87-100.
- Stucke, T. S. & Sporer, S.(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09-532.
- Suh, K. & Yang, S.(2010). The role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psychological stresses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653-671.
- Suh, K., Sin, H., & Yang, S.(2012). Relationships between narcissism, self-esteem, depression, and happiness among children in early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0), 101-119.
- Trumpeter, N., Watson, P. J., & O'Leary, B. J.(2006). Factors withi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s: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narcissism, self-control, and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849-860.
- Washburn, J. J., McMahon, S. D., King, C. A., Reinecke, M. A., & Silver, C.(2004). Narcissistic features in young adolescents: Relations to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247-260.
- Watson, P. J., Hickman, S. E., Morris, R. J., Milliron, J. T., & Whiting, L.(1995). Narcissism, self-esteem,

- and parental nurturance.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 61-73.
- Watson, P. J., Little, T., Sawrie, S. M., & Biderman, M. D.(1992). Meas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434-449.
- Watson, P. J., & Morris, R. J.(1991). Narcissism, empathy, and social desira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75-579.
- Watson, P. J., Sawrie, S. M., Greene, R. L., & Arredondo, R.(2002). Narcissism and depression: MMPI-2 evidence for the continuum hypothesis in clinical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9, 85-109.
- Watson, P. J., Trumpter, N., & O'Leary, B. J.(2006). Factors withi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s: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narcissism, self-control, and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849-860.
- Wink, P.(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1992). Three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Q-se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 51-66.

접수일 : 2013년 03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4월 01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6월 13일